

권오을 前 國회사무총장 ‘을(乙)의길’ 북콘서트

제25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권오을의 저서 '을(乙)의길' 북콘서트가 2월 24일 오후 3시 안동시청내 시민회관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날 북콘서트에 이기택 前민주당 총재를 비롯하여 오경의, 정해걸, 김형태 前 국회의원, 김호일 목사,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재주 안동종친회장, 안승관 유도회(儒道會) 회장, 이종남 노인회장, 권인찬 등 前 경북도의원 7명, 시의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 앞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식전 행사로 신윤식씨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 등 연주하고 본 행사 1부는 안동MBC 노원규 아나운서의 사회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송주희 성악가와 함께 애국가 제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오을 前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세 번째 출판하는 책 제목을 놓고 고민하다가 ‘을(乙)의길’을 선택했다”며 현재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특허를 받은 경위와 ‘경북도청이집’에 관한 지나간 이야기를 나름대로 소상히 피력하면서 “경북은 다가올 행복복지시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며 나아가 새마을, 새경북, 새누리, 새세상을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하고 “국민과 도민이 행복한 복지와 통일시대, 서민이 따뜻하고 부자가 떳떳한 나라의 청사진을 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기택 前 민주당 총재와 오경의 前 국회의원, 안승관 유도회장도 각각 축사를 했다. 축사가 끝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문중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의화, 박지열, 강석호, 정병국 국회의원, 전유성 계그맨, 김덕수 교수



▲ 권오을 전 사무총장이 안동시청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등 10여명이 축하 영상을 각각 보내왔으며 곧 이어 권오을의 '정치 인생 20년'을 담은 영상 비디오판영되었다.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행사로 저자(著者) 권오을과 KBS 안동방송국 김선영 리포터와 두 사람이

무대에 서서 책에 실린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나누면서 이어 갔는데 이날 북콘서트는 2시간에 걸쳐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송주희 성악가가 '경북도민의 노래'를 합창해 부르면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보도부장 권영건>

<1면에 이어>
전국지역총원회 회의 참석종친회장은 아래와 같다. 권오영(원주), 권영갑(수원), 권승구(마포), 권영주(금천), 권호준

(대전), 권영수(제천), 권경관(금산), 권옥만(예산), 권홍화(광주), 권준표(순천), 권영하(대구), 권재주(안동), 권영화(구미), 권병국(상주), 권영성(영천), 권재오(영

천), 권영학(예천), 권오열(의성), 권갑상(부산), 권민호(산청), 권태경(밀양), 권오영(울산) 권혁환(울산), 권태형(마창), 권종렬(진주), 권화성(창령), 권순종(통영), 권혁

길(강릉), 권영한부총재, 권경석사무총장, 권재목(부산 명예회장) 기타 권인호, 권용섭, 권종원, 권성용(부산종친회) 권오진(금천) <기사: 간사 권영갑, 사진: 권오진>

수원종친회 정기총회, 권병후회장 취임

권영갑 전회장 명예회장 추대

지난 2월15일11:00 수원.화성.오산종친회는 제17차 정기총회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328-1 공마당식당(2층)에서 개최 하고 회장이 취임식을 하였다. 이날 경기도 전 부지사 권두현님(부정공과 32世)을 비롯한, 전 수원시 영통구청장 최희순님(수성초씨 총무 권병후 배우자) 등 내외 귀빈 약 40 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권병후 17대 수원종친회장이 취임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방형덕(육상계 전국MC) 씨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께 대한 망배 예 이어, 경과보고 및 감사보고를 한 후 權寧甲 회장(추밀공과 양촌공계 71歲)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 하였으며, 이어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 한 후, 인사말에서 지난 8년간 어려운 시기에 종친회장 정책을 말

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인사를 한 후, 특히 종원 확보의 노력이 미흡하여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하였다. 오늘 젊음을 겸비한 덕망이 있는 후임 종친회장을 선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선임 방법은 제10대회장이

를 지낸 권영구(추밀공과 안숙공계 81歲)씨에게 임시의장을 제안하고 선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였다. 이어 권영구 임시의장은 현 총무인 權炳厚(추밀공과 창화공계 63歲)를 전임추대로 통과 선임 되었다. 이어 신입 권병후회장은 취임인

사에서 전임 회장에 대한 공격적화와 함께 젊은 봉사자를 선임 한 것은 젊은 청장년세대 들을 많이 영입 하여 화합 과 발전을 도모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를 하겠으니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권두현 전 경기부지사는 격려사로 우리지역 종친회 발전을 위해 이근 영갑 회장과 병후 총무에게 감사와 더불어 분회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서 발전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끝으로 분회 발전을 기원하는 시루떡 커팅 를 끝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식사 후 폐회 하였다.

공로패 수상자 명단 : 권영식, 권병을, 권영부, 권영주.

△제17대 수원종친회 임원진 명단 명예회장 권영갑 회장 권병후 부회장 권영부, 권순만, 권오중. 감사 권영주 총무 권혁목(수원종친회 총무 권혁목)

사와 권기선 경북도경경찰장등이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이어 승호 회장이 혁창 직전회장에게 공로패전달과 선물 증정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하였다.

이어 2부 만찬에서 신, 구임회장의 축배 제의로부터 초대회장을 비롯 前회장단과 고문진이 건배 제의한 가운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신입회 소개가 있었다. 신임회장의 안내로 권오을(46세, 35世 추밀공과, 현대디자인출판대표 포천소재), 마포종친회 안내로 권수용(27세, 35世 추밀공과, 現부동산업) 최 연소 죽진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 공지사향으로 안동권씨대종원에서 범준 홍보부장이 다가오는 3월22일(토) 오전11시 서울역 그릴(4층)에서 안동권씨전국청장년회 발기 총회가 있음을 알리고 문중행사로 시조님 춘향계제 전일(4월5일) 오후7시부터 대당회의, 이어서 전국 청장년회 회장단회의가 이어 진행되고 4월27일(일) 대전뿌리공원 대광장에서 제26회 전국 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가 개최되니 상세 내용은 '안동권씨정보'를 많이 참조하여 많이 참석 바란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이날 권승호 신입회장이 축의금 300만원을 찬조하였으며 이외도 정수고문 20만원, 기욱회장, 혁창 직전회장, 영석 산악회장 등 각자10만원과 많은 종친회원이 함께 성의를 표했다. <권범준 본원홍보부장>

안동종친회 임원회의

안동종친회(회장 권재주)는 임원회의를 3월 15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종친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권재주 안동종친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세 안동시장,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희택 등 부회장단, 운영위원, 대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동종친회임원회의에서 권재주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태사공 묘소에 망배(望拜), 회장인사, 부의의안(附議 議案)인 정기총회 개최 건, 2014년도 신년 인사회 결산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권재주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운영위원 회의는 안동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며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임원개선을 해야 하는데 오는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어서 임원선을 할 경우 원활한 파악과 업무미숙 등으로 원활한 조직관리가 어렵고 화합에도 저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6.4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대성(大姓)의 뉘를 하려면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러분의 활동여하에 따라 권문(權門)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단합된 힘을 과시하자”고 말했다.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부의의안인 “2014년 정기총회 개최 건”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난 6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곧 이어 권박 사무국장이 신년 인사회 때 들어온 특별찬조, 광고료수입, 참가회비수입, 이자수입 등 총 2천6백60여 만원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보고 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한 임원들은 안동권씨회관 1층에 있는 '안반발상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길림 종친회 제37회 정기총회

안동 권씨 길림 종친회는 12월22일 길림시 권씨회관에서 회원대수가 모여서 정기 모임을 하였다. 권혁신 총무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권종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 들에게 올 한해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하에 우리 길림 종친회는 무사히 잘 진행되었으며 더 큰발전을 하였으니 회원님 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회의에서는 중점적으로 길림 종친회 창년회를 조직하고 발전에 대해 심층 토론을 하였다. 권혁신 총무는 2013년도 종친회의 결산을 보

고하였으며 길림 종친회 9월28일 가을 아우회에 관하여 결산과 총결을 보고하였다.

권종희 회장은 올한해에도 우리 종친회는 회원여러분께서 정기모임과 여러행사를 통하여 족친간 더욱 단합되었고 상호간에 친목을 두텁게 하였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공존공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권씨의 역사를 쓰자고 당부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회원님들께서는 달콤한 술 한잔과 오락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한 해를 결산하였다.

<길림 종친회 회장 권종희>

2014년 서울산악회 시산제(始山祭)



▲2014. 3. 16 권관산 기슭 무너미계곡에서 시산제를 하고 있다.

서울산악회(회장 권영석)는 지난 3월16일(일) 오전10시 서울대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회원 50여명이 집결, 관악산 기슭 무너미계곡으로 이르는 계곡에서 신년 시산제를 정오(正午) 시간을 기해 권오을 부회장의 사회로 단기4347년 안동권씨서울산악회 시산제를 봉행한 후 시조태사공 망배 이어 순용 부회장의 산악인 신서를 한후 이어 권영석 회장의 강신례(降神禮) 오운 부회장의 “오늘 3월 16일 저희 안동권씨 산악회 모든 회원들은 지난 2013년 기사년에 무사하게 산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천지신령과 산신령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에도 무탈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길 소망” 라고 초흔문(招魂文) 낭독 하였다. 회원이 모두 한자리 모여 고사올린 폐지머리와 술과 떡으로 음복을 한후, 무너미계곡로 발길을 재촉 서울대수목원을 통과 안양예술공원내 싸리밭식당에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되었다.

이어서 오찬을 겸해 정기월례회로 경탁 사무국장의 결산보고로 부터 영석 회장의 인사에 앞서 오늘 내빈소개로 권영방 前회장, 권재영,

권계주 대종원부총재 권수용 신입회원을 소개하였다.

이어 영석 회장의 인사로 “오늘 창명한 날씨에 시산제례도 잘 율리고 또한 우리 족친회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너무나 반갑고 대종원 부총재단에서도 참석 해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 후원해주신 회원께 거듭 이 자리를 기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산악회가 돌이켜 보면 서울 수도에서 20여년의 성장(星霜)에 타기문의 보기 드문 송조이님의 비탕과 뜨거운 혈족애로 회원 가정에도는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라고 했다.

이어 공지사향으로 권기성 회원이 4월 5일 (토) 오후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장남 세호군 결혼식, 안동권씨산악회 표창을 주문제작을 알리고 서울청년회 타올(70장), 권혁조 고문 10만원 찬조를 발표하고 시산제 및 산행을 모두 마쳤다.

<권범준 본원기자>

서울청장년회 권승호 회장취임



▲ 권승호 서울청장년회 취임식(2014.3.6 서초동 서초대기요정에서)



▲ 권영성 초대 서울청장년회장이 제9,10대 이·취임 식에 축사

서울청장년회는 지난 3월6일(목) 오후7시, 서초동 '서초대기'에서 2014년 임시총회를 개최, 제9대 권혁창 회장 취임 및 제10대 권승호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권영성 초대회장, 권정수 고문, 권혁창 서울산악회고문, 7·8대 권기욱· 권혁용 전회장단을 비롯 임원, 종친회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진행은 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망배로 부터 혁창 직전회장의 개회, 내빈소개를 마친후 이임사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청장년회의 초석을 다진 초대 영상회장, 제7대 기욱회장, 8대 혁용회장, 정수고문, 혁찬 산악회고문,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간 3년여 임무를 수행하면서 후임 격려 해주신 종친 회원께 이 자리를 기해 감사하며, 승호

회장이 맡겨져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어 권승호 신임회장(61세, 안동남석면, 36世, 동정공과, 現신영성유 대표 경기포천시 소재)은 취임사로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종친회원! 서울청장년회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고 오는 경칩(驚蟄)에 가운데서도 초대회장님을 비롯 고문 및 임원, 회원께 자리를 빛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 선박이 선장 한사람만으로 망망대해를 향해 할 수 없듯 분회도 결코 회장 한사람만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니 화합과 번영의 길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종친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하였다.

이어 권영성 초대회장은 축사에

서 오늘 분주한 가운데 우리 ‘당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애써준 9대 혁창 회장 및 회원족친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안동권씨청년회를 이끌어갈 신임 승호 회장에게 축하드림을 전하며,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활동하는 본질적 차원에서 볼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가에 근근이 넘고 바탕이 되는 국시(國是)가 있듯이 우리 권문(權門)에도 종시(宗是)가 있다. 첫째 송조이님 확립(崇祖理念確立), 둘째 애족상상 고취(愛族思想 鼓舞), 셋째 후학계도 기(後學啓導 膏與), 넷째 사회윤리배양(社會倫理 培養)에 있으니 이러한 우리 권문에 본질을 알고 후손 후학에 계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격려사를 하였다. 이어서 전임회장과 혁찬 산악회고문의 축

동정



▲ 권이혁 전 장관은 현 세계경제포럼 운동본부 명예총재로 왕성한 사회봉사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 3월21일 오후 6시 서울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16대 관악대상 수상자로 수상했다.



▲ 권영세 주중국 한국대사는 분주한 외교업무 가운데 국가발전의 진력(盡力)을 다하는 면모로 근간 중앙일보 기고를 통하여 “중국의 급변환경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서 ‘중서부 개발·환경오염·서비스업 진흥은’ 우리에게 새로 열리는 고부가가치 시장 등 높은 신(新)성장동력이란”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지난내년부터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대사관의 핵심업무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 학술원은 14일 총회를 열고 현 권속출 명예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권회장은 서울대물리학과 교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다.



▲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월6일 총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2014 육·해·공군장교 합동인사식에 박근혜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참석하여 육·해·공군 임관장교들과 “파이팅”하였다.



▲ 권태신(65)전 국무총리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지난 3월14일부 선임 되었다.



▲ MBC는 지난 3월6일부 권재홍 현 보도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안동예안면지회 종친회 정기총회

안동예안면지회종친회(회장 권오득)는 지난 3월10일 오전11시, 안동 예안면정신리 새명식당에서 종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기익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묘소를 향한 망배와 상경례가 있었으며, 권오득회장의 인사와 권재주안동종친회장·권기익씨(임동면)의 각 고무적인 축사가 있었다. 권영국감사의 감사보고와 총무의 경과보고,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임원선출에 들어가 권기창, 권영화(女)를 선출하고 감사 권영국, 총무 권기익을 유임시켰다. 기타 토의후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속에서 폐회했다.

<권혁세 기자>